

10월 17일(월) / 녹10-12

▶**내용요약:**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과 함께 돌아와 보고하는 모습이 기록된다. 또한 강도 만난자의 진정한 이웃이 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대접을 위해 분주한 마르다와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의 대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1장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바알세불 논쟁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논쟁하신다.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신다. 이어 깨어 준비해야할 것을 권면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11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12:25)고 하신다. 이어서 의식주 문제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문제들은 더해주시겠다고 하신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의식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가?

10월 20일(목) / 녹19-21

▶**내용요약:** 19장은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부르고 열므나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정화 사건이 기록된다. 20장은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과 논쟁하신다. 권위, 세금 납부, 부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다. 21장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언하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고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신다.

▶**질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 밤에는 어떤 산에서 쉬셨는가?(21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21:33)고 하신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멸망하는 날, 그 날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언젠가 멸망하고 없어질 세상의 부귀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서인들이 되자.

10월 23일(주일) / 요4-6

▶**내용요약:**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신다. 이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5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테스다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기 변호를 통해 메시아인 자신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임을 드러내신다. 6장은 오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리신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물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며 자신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10월 18일(화) / 녹13-15

▶**내용요약:** 13장은 예수님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신다. 이어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다. 14장은 안식일에 수증병자를 고치시고 높은 자리가 아닌 끝자리에 앉을 것을 가르치신다. 큰 잔치 비유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신다. 15장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신다.

▶**질문:**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전 몇 년간 고통을 받았는가?(13장)

▶**생각하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짓 선지자나 종교지도자들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13:26)고 말할 때, 주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13:27)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는 현재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0월 21일(금) / 녹22-24

▶**내용요약:** 22장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모욕과 수난을 당하신다. 23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심문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다.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만나 성경을 설명해주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교제하신다. 이어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승천하신다.

▶**질문:** 공회 의원이고 하나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23장)

▶**생각하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근심에 싸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가르치신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24:32)라며 반응한다. 이 제자들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생각하기:**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다. 이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5:17)고 하신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에 아들인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이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열심을 내어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나는 ()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6장)

10월 19일(수) / 녹16-18

▶**내용요약:**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이어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며 두 비유 중간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경계할 것을 말씀하신다. 17장은 형제를 실족케 말고 끝까지 용서할 것을 강조하신다. 믿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 이어 열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다. 하나님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신다. 18장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온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시고 여러고의 맹인을 고치신다.

▶**질문:**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는 말을 한 제자는 누구인가?(18장)

▶**생각하기:** 하나님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고쳐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나라를 국가나 영토와 같은 정치 체제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17:21)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10월 22일(토) / 요1-3

▶**내용요약:** 요한복음 1장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다나엘과 만나신다. 2장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기록한다. 이어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다.

▶**질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한 사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1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3:5)을 가르치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출생 이후 성령으로 인한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과연 거듭남(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중생의 체험이 성서인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생각하기:**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다. 이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5:17)고 하신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에 아들인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이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열심을 내어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